

등록금 책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입장글

등록금 책정심의위원회(이하 등책위)는 지난 1월 5일 2005년도 연세대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을 위원 10명 중 8명의 찬성으로 5.7%에 합의했다. 이것은 실제로 작년까지 총학생회가 매년 2~3개월을 투자하여 학교 측을 상대로 벌인 교육투쟁의 결과보다 얼마간 낮은 인상률이다. 그러나 1%도 채 안되는 인상률의 차이 대신 (이 차이조차 경기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절대적인 수치의 비교일 뿐이다), 그리고 몇 달의 시간 대신 우리는 학생의 자치권에 속하는 많은 부분을 학교에 반납해버리고 말았다. 그 시작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벌어왔던 논의에 대한 총학생회의 외면이었으며, 결과는 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을 학생 대표들조차 언론을 통하여 알게 된 등책위의 밀실 행정으로 드러났다. *중운위까지 영향X, 등책위, 영향X. 노컷뉴스 (남영, 반표) 합의가 의미가 없다.*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률이 등책위에서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회의에서 제공된 회계 자료를 분석할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위원들로 이루어진 등책위가 위원들 외의 그 누구의 참관도 거부하면서 논의한 내용들이 과연 어떤 내용일까. 물론 합의라는 단어가 '뜻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을 고려해볼 때, 교수 측 위원과 총학생회는 분명 합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등책위가 '학교'와 '총학생회'가 합의하는 자리였다면, 연세대학교의 전체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등록금 책정에 대한 논의를 학내 언론이나 중운위원회에게조차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려하는 교수 측 위원들로 이루어진 자리였다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결국 연세대학교의 2005년도 등록금에 대한 합의는, 아무 근거 없이 학교 측에서 제시하는 인상률을 조금씩 낮추어 적당한 중간 지점을 찾은 것에 불과하다. 물론 지금까지 교육투쟁을 통한 등록금 인상률 조정 역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사실상 학교가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측이 경제상황과 학교의 재정 실태를 파악하여 인상률을 논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등책위에서 제공된 자료들은 등록금 9.5% 인상을 전제로 하여 급조된 예산안이나, 세부 항목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는 지난해의 예결산 자료들이었으며, 등책위에 참가한 위원들은 이러한 자료들조차 분석할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등책위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등록금 '인상'을 전제로 한 뒤 감정적인 수위를 조절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교육투쟁을 통해 결정되어왔던 등록금 인상률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교육투쟁 과정에서 그 목적과 의의, 진행 상황을 학내에서 적극적으로 공유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등책위의 심의 과정은 학교 측의 정보력과 행정력 독점, 불투명한 재정관리, 또한 지금까지 등록금 문제와 함께 요구해온 사안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 등을 무시한 채 학교 측의 탁상 행정에 동의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자치권에 대한 심각한 손실이며, 교육투쟁에 쏟아 부은 역량을 아끼게 된 것이 아니라 더욱 험겨운 교육투쟁을 펼쳐야할 상황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총여학생회는 지금이라도 등록금 책정 과정과 현재의 교육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방향의 교육권 확보 운동을 학생들과 함께 모색할 것이다.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움.펼.틈. 제 17대 총여학생회

*등록금 책정, 등책위, 입장 ;